

지역 소식통

완주군 모악산·대둔산 탐방로 임시폐쇄

완주군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모악산, 대둔산도립공원을 임시 폐쇄한다.

23일 완주군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새해 3일까지 임시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의 밀집이 예상되는 해맞이, 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의 폐쇄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완주군도 관내에 위치한 모악산 도립공원 및 대둔산도립공원 탐방로 폐쇄를 결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 오던 도립공원의 폐쇄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예방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원광보건대학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협약 체결

김제시는 23일 원광보건대학교 산하협력단과 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을 가졌다.

시는 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원광보건대학 산하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재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며,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100명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급식 위생을 관리하게 된다.

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김제시 통서로 128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 팀장, 위생팀, 영양팀 등 총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 관내 97개소 등록 대상 급식 시설을 100%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서흥기 보건소장은 “김제시의 어린이 급식의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안전을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맞춤형 복지 ‘호평’

현장 중심의 복지 방역망 확대 구축·저소득 위기가구 적극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 주력

국내 복지정책 1번지 완주군이 ‘현장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방역망’을 확대 구축하고 코로나19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원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해 지금까지 1,380가구에 9억9,800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또 1인 가구 어르신과 장애인, 유질환자와 급작스런 생활고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3개 읍면 맞춤형복지팀이 주축이 돼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복지와 주거, 고용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읍면의 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 기능을 전담하며 위기가구 선제 발굴에 앞장섰다.

코로나19 확진 접촉자와 해외 입국 등으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수칙을 이행한 125가구에 대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900만원을 지급했으며 완주 ‘1111사회소통기금’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전문 모금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주택지원비, 의료비 등 94건에 2억9,2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했다.

이 밖에도 여러 개인과단체로부터 4억4,500만원의 성금과 2억5,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확보해 지역 취약계층에 골고루 전달했다.



국내 복지정책 1번지 완주군이 ‘현장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방역망’을 확대 구축하고 코로나19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호평을 받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큰 몫을 했다. 470여 명으로 구성된 군·읍·면 위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8건에 1억8,700만원의 사회공헌 사업비를 확보해 다양한 읍면 특화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었다.

봉동읍에 이어 올 10월에 개소한 삼례읍 ‘한넛을 행복배려방’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기대를 모았고, 보건복지부의 2019 지역복지평가에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완주군은 ‘2020희망나눔캠페인’에서도 4억6,400만원을 모금해 도내 14개 시·군 중 2위를 기록하며 기획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코로나19 극복

나눔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완주군은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던 올 2월에 지역기업인 (주)현대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장을 기탁받아 감염 취약계층에게 신속히 지급했다.

또한 6월에는 전국 최초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민 생계안정과 전국적인 과급 효과를 거뒀다.

완주군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를 운영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여러 위기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내년도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삼례·고산 도시재생 추진된다’

삼례 대학촌·고산 또랑골목길 조성... 도시재생 예비사업 최종 선정

완주군이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돼 삼례읍과 고산면의 도시재생이 추진된다.

23일 완주군은 ‘삼례 대학촌’과 ‘고산 또랑골목길 조성’으로 2020년 국토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3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토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 참여 확대 및 주민역량 강화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삼례읍은 누구나 오고 싶은 대학로를 조성해 주민과 대학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

참여 프로젝트를 운영해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 지속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

특히, 우석대학교와 지역상가의 상생협력과 대학로 상권 등을 활용해 삼례 지역의 도시활력을 증대하고 주민협의체 인적지원을 지역재생의 근간으로 활용,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산면은 향수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또랑골목길 경관 개선 및 역사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예절 학교와 마을 축제가 계획돼 있다.

고산면은 인근 6개면의 중심지로 또랑골목길과 연계한 고산재래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완주군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 후 본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공모도 계획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선발

김제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4명을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우수 등급은 백구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추진방식을 변경해 지원도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백구특장차전문단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되어 특장차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청신호를 켜 투자유치과 정효관 담당이 선정됐다.

우수 등급은 전국 최초 24시 자살위기 대응반을 운영하여 전복 내 자살률 순위 1위에서 6위로 감소시킨 치매 생활과 장은주 담당이 차지했다.

장려 등급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

터 감염병관리대책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해외입국자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추진한 보건위생과 새내기 공무원 정은주, 신용카드 제휴적립금 제도를 활용해 신용카드 활용 저출을 확대하여 세외수입을 전년 대비 5배 증가시킨 회계과 김미리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기획감사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4대 분야 14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 3개 추가선정

내년 1월 중 만50세~70세 참여자 33명 모집 예정

김제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지난 10월 2개 사업 선정에 이어 3개 사업이 추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신중년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들이 경제활동에 재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21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두차례 참여해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 등 총 5개 사업에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체사업비를 더해 총 5억9천만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중 참여자 3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각 사업별로 요구하는 근무경력과 자격을 보유한 김제시 거

주 만50~70세 미취업자로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월 150여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신중년 전문 퇴직인들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인생2막을 새롭게 열고,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중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올해 식품안전관리분야 유공기관 선정

김제시가 2020년도 식품안전관리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전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식품안전관리분야에서 김제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유통가공식품 안전성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식품위생업소 1,917개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 강화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614개소 1,461건 진행해 식중독 발생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식품안전관리분야 유공기관 선정은 식중독, 어린이식생활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을 선정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해당시설 방역수칙 야간점검과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등 감염병 예방활동에 관한 총력도 기울여 왔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은 “위해식품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생활방역수칙 점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